

바다에서 배우는 '돌고 도는' 삶

[발로달는 잠녀]한림읍 귀덕1리

등록 : 2007년 02월 25일 (일) 17:24:11
최종수정 : 2007년 02월 25일 (일) 17:24:11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요 바당에, 요 물에 들언(여기 바다에, 여기 물에 들어가서)/좁복 구쟁기 고득하게 잡아당/(전복 소라 가득하게 잡아다가)/흔 폰 두 폰 모이단 보난(한 폰 두 폰 모이다 보니)/서방님 술값에 문짝 들어 감찌 (남편의 술값에 모조리 들어가더라)”

힘하디 힘한, 몸과 마음도 다 지치는 작업을 하면서 남편에 대한 원망을 풀어내던 잠녀들의 노래. ‘씩’ 하니 웃음을 머금다가 이내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진다. ‘오죽하면 …’하는 안타까움과 ‘이제는 …’하는 아쉬움이 교차한다.

△아픔을 안고, 돌고 도는 바다

귀덕1리 어촌계를 찾았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큰여의 ‘무인등대’다. 바닷길을 헤매는 사람 뿐 아니라 마을을 찾은 초행들에게도 좋은 이정표가 될 듯 싶다.

이곳 잠녀는 44명. 12물에서 6물까지 한달이면 열흘정도 물에 든다. 양식장이 있는 구드락에서는 한 달 두 번 작업을 한다. 참가자에 한해 금액을 기준으로 공동분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드락을 제외한 바깥바다는 언제나 원하는 때 작업을 하면 된다.

소라는 공동판매를 하지만 지난해부터 전복과 오분자기, 성게들은 개인판매를 한다고 했다. 공동판매를 할 만큼 물량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소라도 1월에는 제대로 작업을 하지 못했다. 수협에서의 소라 수매가 중단되면서 잠녀를 찾으려면 쪽 파작업장에 가는 것이 더 빠를 정도다.

2003년까지만해도 상품성 좋은 소라가 많이 나서 잠녀들의 물질 작업도 어느때보다 가벼웠다. 하지만 지금은 물건이 크게 줄어 잠녀들의 움직임이 덜달아 둔해지는 듯 보였다.

예전에는 소라가 있던 자리에 성게가 수북히 자리를 잡았다. 그 성게도 5~6년전에는 딱살이 떨어지는 병이 번지면서 집단 폐사, 제대로 작업하지 못했다.

롯데 공동작업은 어촌계원 전체가 참여하는 큰 사업. 지난해 잠녀 2명이 죽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공동 작업으로 진행된다.

소라-전복 대신 뽕족히 자리를 잡은 것 중 하나가 잠녀들이 ‘거들래기’ 또는 ‘건드락지’라고 부르는 소라게다. 소라 껍질 등에 동지를 뜬 새우나 게를 잡아다 갓돔 미끼로 판다.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한창 갓돔을 잡는 2월중 하루 20만~30만원 벌이가 된다. 해삼 역시 2월에 작업을 해 소라와 오분자기 다음으로 수입원이 된다.

△그래도 아직은 바다에 살고

이곳에는 2005년에만 해도 20대 잠녀가 있었다. 고령의 잠녀들의 경륜으로 바다밭을 일군다면 젊은 잠녀는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활력이 됐다. 개인적인 이유로 바다를 떠났지만 아직 이곳에는 30대 잠녀가 남아있다.

그렇다고 잠녀들의 벌이가 다른 곳에 비해 좋은 것도 아니라고 했다. 40대의 대상군이 지난해 물질로 번 수익은 500만원 남짓. 대상군이 이정도니 상군·중군으로 내려가면서 그 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줄어든 자리는 어촌계 수익사업에 따른 배당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제일 큰 어촌계 사업인 '정치망어선'임대로 몇 년전만 해도 어촌계원(총 86명) 한사람당 80만원 남짓한 배당금이 돌아갔다. 그것도 지금은 40만원 정도로 줄었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배당금 관리를 위해 4월부터 어촌계 간사가 포구에서 수확량을 확인하고 현황을 파악하는 등 관리를 한다.

대상군은 대상군대로 물질이 힘든 고령 잠수들을 대신해 불가사리 제거 작업 등을 해 수익 일부를 보탠다. 다 바다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라 했다.

이곳 잠녀들 역시 전복 종패 사업을 환영하지 않았다. 2005년과 2006년 각각 2만5000미와 2만미의 종패를 뿌렸지만 거둬들이는 것은 거의 없었다. "버리는 건 더 이상 못하겠다"는 잠녀들은 대신 오분 자기 종패 등 다른 사업 진행을 희망했다.

그렇게도 바다와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잠녀들이 이제는 물에 머문다. 따뜻한 기운이 번지면서 계절은 서울로 봄으로 모습을 바꾸고 있지만 그네들의 바다는 아직 겨울이다. 제대로 결실을 맺지도 못하고 오래 머물지 못하게 그렇게 잠녀들의 등을 떠밀고 있었다. 언제쯤 이 '겨울'바다에 봄이 돌아올까. 애꿎은 달력만 몇번씩 들춰보던 취재길이었다.

'발로 밟는 잠녀들의 삶' 다음 이야기는 한림읍 비양도이며, 관련 내용은 해녀박물관 홈페이지(www.haenyeo.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